

北美의 東洋學 과정 일별

權赫贊*

<목 차>

1. 명칭과 구성
 - 1) 지역적 특성에 의한 구분
 - 2) 과에서 제공하는 학문적 영역에 의한 구분
2. 교과목 커리큘럼/학부생 인원수
3. 대학원생 인원/교수진 인원/우수 대학원생 유치
4. 우수 전임 교원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교수업적 평가제도
5. 연구비 관리제도
6. 취업현황
7. 동양학 도서관
8. 학회(Conferences)
9. 학술지(Academic Journals)
10. 결어

1. 명칭과 구성

최근 일부 대학에서 기존의 중어중문학과를 중국학과 또는 중국학부로 개편하는 움직임을 예외로 한다면 한국의 대학에서 중국어 또는 중국문학을 가르치는 과정은 대부분 인문대학 (또는 문과대학)의 중어중문학과에서 담당하여 왔다. 북미 (미국과 캐나다)에서도 수십 년 전부터 여러 주요한 대학에서 중국어문학을 가

* 高麗大 中文科 講師

르치는 과정이 있어왔고 최근 중국에 관한 관심이 꾸준히 늘어나는 것에 비례해 점점 더 많은 대학에서 중국어를 가르치게 되었다. 본고에서는 북미 대학 및 기타 학술 연구기관에서의 중국학 연구의 시스템이 한국과 어떤 차이가 있는 지 간략하게 조명해 보려고 한다.

북미에서의 중국학 과정을 논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언급해야 할 것은 북미에서는 (학과명으로서)는 중어중문학과의 거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대학에서 중어중문학을 가르치지 않는다기 보다는 중어중문학 학사 이상의 학위를 제공하는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동양학과, 동양어문학과, 동양언어문학과 등의 포괄적인 명칭을 갖고 있는 과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전공 중의 일부로 중어중문학을 가르친다. 다시 말해 단과대 수준 이상의 북미 대학에는 대부분 중국어와 일본어-최근에는 한국어 과정이 개설된 대학도 점점 늘어가는 추세이다. 배울 수 있는 과정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학사나 석사 학위 소지자들로 구성된 강사들이 대학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외국어 수업중의 일부로 중국어나 일본어를 가르치는 수준이다. (이는 국내 대학의 해당 언어 비전공자를 대상으로 개설되는 교양 중국어나 교양 일본어 과정과 비교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학교에서는 중국어나 일본어를 외국어로 배울 수는 있어도 대부분의 경우 이를 전공할 수는 없다. 특히 중국어문학, 일본어문학 등의 과정을 위주로 학부 전공, 대학원 학위 (석박사 과정)까지 제공하는 대학들은 북미 전역에 대략 30여 곳 정도이다. (최근에 동양 언어 문화 전공의 대학원 과정 개설이 점점 늘어가는 추세이다). 한국에서는 상당한 명문대로 알려져 있는 대학도 중어중문학 또는 일어일본학 과정이 학위를 수여하는 독립된 전공으로 개설되어 있지 않은 학교들이 많다고 할 수 있다.

중문학 학위 (학, 석, 박사)과정을 제공하고 있는 학과들도 상당히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고 있다. 다시 말해 한국처럼 중문과나 일본과 등으로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명칭들이 없다. 여기에서는 편의상 중국학 과정을 포함하고 있는 다양한 학과의 명칭을 그 학과가 포괄하고 있는 지역적 특성과 학문적 특성으로 구분하여

보았다.

1) 지역적 특성에 의한 구분

1-1) 한국, 중국, 일본학 모두 또는 이중 일부를 포함하고 있는 학과-동아시아(East Asian)란 명칭이 학과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몇몇 대학을 제외하고는 아직은 한국을 제외하고 중국학, 일본학 이 두 지역 위주로 연구를 진행하면서 이런 명칭을 쓰는 경우가 보편적이다.

1-2) 위의 동아시아 및 남아시아(인도), 동남아시아(혹은 중앙아시아)까지 포괄하고 있는 학과-흔히 아시아(Asian)라는 포괄적인 명칭이 과 이름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요즘의 추세는 동아시아학과가 커지면서 아시아의 다른 지역 연구를 포괄, 아시아학과로 명칭을 바꾸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최근 University of California-Los Angeles의 동아시아언어문화학과도 아시아어문학과로 개명하였다.) 그러나 과가 커지며 동아시아학과와 아시아(동아시아를 제외한 기타 지역)학과로 분리하는 경우도 있다. (하버드 대학, 하와이 주립 대학 등의 경우 동아시아학을 다루는 학과와 동아시아를 제외한 아시아의 다른 지역의 학문을 다루는 학과가 분리되어 있다.)

2) 과에서 제공하는 학문적 영역에 의한 구분

역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어학(언어학)과 문학이다. 북미의 거의 모든 동아시아 학과에 기본적으로 이 두 전공이 개설되어 있다. 하지만 상당히 많은 대학에서 이 어문학 전공과 함께 사학, 철학 전공이 같이 개설이 되어있고 최근에는 (동)아시아 지역의 영화학(film study), 여성학(women's study), 종교학, 현대문화(pop culture) 등

의 인문학 전반에 걸친 세부전공들이 많이 추가되는 추세이다. 이런 면에서는 文史 哲이 서로 완전히 괴리된 학문이 아니고 상호 연계성이 강하다는 중국의 전통적인 사고방식이 반영되어 있다 볼 수 있다.

이상 위의 1), 2)의 요소가 복합되어 한국의 중문과, 일문과, 국문과, 그리고 동양 사학과, 동양철학과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 과의 명칭이 되는 경우가 많다. 가장 흔한 예를 몇 가지 들어보면

*동양(극동)어문학과(Department of East Asian Languages and Literatures): 하와이 주립대(University of Hawai'i at Manoa)의 경우가 이런 예이다. 한중일의 어학, 문학 전공이 개설되어 있다. 한국을 빼 중국과 일본의 어문학 전공만 개설된 경우도 이런 명칭을 쓰는 경우가 있다.

*동양(극동)언어 및 문화학과(Department of East Asian Languages and Cultures): 중국과 일본 (또는 한국)의 어학, 문학에 덧붙여 역사학, 철학, 기타 위에 나열한 세부 전공들이 같이 개설되어 있는 경우에 이런 명칭을 쓰고 있다. 시카고대학(University of Chicago)이나 하버드대학(Harvard University)의 경우 Department of East Asian Languages and Civilizations란 명칭을 쓰듯이 세부 명칭은 대학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아시아 어학 및 문화학과 Department of Asian Languages and Cultures: 세부 전공의 위의 두 번째 예와 같지만 인도, 동남아시아 등의 지역까지 포괄하는 가장 광범위한 범위를 가진 학과명칭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한 과에 상당히 다양한 종류의 전공이 개설되어 있다는 것이다. 필자가 근무한 캐나다 밴쿠버 소재의 브리티시 컬럼비아대학(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의 아시아학과 (Department of Asian Studies-위의 세 번째 예에 해당)의 경우에도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는 전공만 한국어학, 한국문학, 한국사학, 한국철학, 중국어학, 중국철학, 중국사학, 중국 고전소설, 중국 고전시, 중국 현대문학, 일본어학, 일본사학, 일본 고전시가, 일본 고전소설, 일본 현대문학, 인도문학, 동남아시아 문학, 불교학, 아시아 종교학 등으로 다양하다.

위의 예와 같이 중어중문학 전공이 독립된 한 과로 개설되지 않고 동아시아학이란 광역적인 개념의 학문의 일부로 자리매김하는 것은 수십 년 전 이 전공들을 개설할 당시 북미에서의 동양학에 대한 관심과 연구의 규모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이 작았던 것에서도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연계 학문 간의 밀접한 교차 및 비교 연구(interdisciplinary/multidisciplinary studies)를 강조하는 북미의 학문적 특성에서 기인했다고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서양 학자들 간에서조차 세계 인구의 1/3 이상, 세계 면적의 1/5 이상을 차지하며 또한 수십 개의 국가, 수백 개 이상의 민족, 수천 개 이상의 언어 내지는 방언을 포괄하고 있는, 규모면에서나 문화의 다양성에서나 세계에서 가장 큰 대륙을 아시아(Asia)란 명칭 하나로 묶어 정의하려는 시도 자체가 무리한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애초에 아시아 대륙이라는 명칭 자체가 제국주의 시절 서양인들의 분류상의 편의를 위해 쓰이게 된 이름으로 아시아 전체를 아우르는 공통적인 특질을 정의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과거 인도의 지식층의 언어였던 산스크리트어(Sanskrit)는 다른 동양 언어보다도 유럽 언어에 더 가까워 인도유럽어족의 언어로 분류되고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반론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연구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서양학(그들의 입장에서는 국학)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동양학이란 학문의 위상이 정립되어 있다 하겠다.

2. 교과목 커리큘럼/학부생 인원수

위의 세 가지 예에서 알 수 있듯이 학과가 얼마나 넓은 지역적 학문적 영역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개설되었느냐에 따라 교과목의 범위와 가짓수가 차이가 많이 나게 된다. 여기서는 중문학과 일문학을 위주로 대부분의 대학에서 공통되는 부분에 대해 간략하게 논해 보고자 한다.

우선 어학 부분을 살펴보면 보면 1학년(초급)부터 4학년 과정까지 개설이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한국의 대학과 다른 점은 한국과 같이 비중문과 출신의 다른 과 학생들에게도 개방되어 있는 1학년 교양 중국어 과정과 중문과 전공 학생 위주의 2-4학년 어학 수업 같은 구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북미식 학부제에 기인한다. 2학년으로 올라가면서 전공선택을 해야 하는 한국과는 달리 북미에서는 1, 2학년 때 여러 과목을 이수해 보고 대략 3, 4학년 때 자신의 학점과 이수한 과정의 숫자들을 고려해서 자기 전공을 정하게 된다. (2학년 올라가면서 바로 전공을 확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아직 전공을 정하지 못한 학생들은 전공란에 undecided/undeclared라고 쓰게 된다.) 다시 말하면 학부생의 경우에는 자신이 어느 과의 학생이라는 소속감이 거의 없게 된다. 예를 들어 동양학에 막연한 관심이 있던 한 학생이 중문학 과목 몇 과목 수강해 보고 일문학 과목도 몇 과목 수강해 보았는데 중문학쪽이 자신에게 좀 더 맞는 것 같으면 과에서 지정한 undergraduate advisor (학부생 전담 지도교수)를 만나 자신의 의향을 밝히고 진로를 상담하고 과에서 지정한 전공필수 과목을 마저 이수하면 중문학 전공으로 인정된다. (전공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대학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12과목 36학점을 이수해야 하는 경우가 보편적이다.) 따라서 어학과목의 수업분위기는 1-4학년 모든 과목이 한국 대학의 교양중국어 수업 분위기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3, 4학년 고학년 수업도 여러 다양한 전공을 가진 학생들이 단순히 고급 중국어를 배우려는 목적만으로 이수하는 경우도 자주 볼 수 있다. 따라서 같은 중어중문학 과정이라 하더라도 어학과목(특히 1, 2학년과목)의 수강생 수가 문학과목의 수강생 수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필자가 근무한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이하 UBC로 약칭)의 경우 한 해에 중국어 수업을 듣는 학생 수만 약 2,800명에 달하며 중국어 강사의 숫자가 약 20명, 수업의 일부를 분담하는 중국어 과정 조교가 20명 가량 된다. UBC보다는 과의 규모가 작은 University of Minnesota-Twin Cities의 Department of Asian Languages and Literatures의 경우를 보면 2006년 현재 한 해에 과에 개설된 수업을 이수하는 수강생(enrollment)수가 약 3000명에 이른다고 한다. 하지만 이 3천명의 인원 중 과에서 개설되는 동양학 관련

수업을 전공으로 이수하는 학생들도 있고 단순히 교양으로 수강하는 학생들도 있으며 또한 한 명이 여러 수업을 들어 중복되는 학생들도 있으니 정확한 학부생 인원은 산출이 상당히 어렵게 된다. 따라서 학부생의 정원을 논할 때에 한국처럼 중문과 한 학년 정원이 몇 명이라는 식의 계산은 성립하지 않고 다만 한 해에 그 과의 수업을 듣는 수강생의 수(enrollment) 또는 어떤 특정 과목을 이수하는 수강생 수가 대략 몇 명에 이른다라는 셈법과 한 해에 중문학을 전공으로 하여 졸업하는 학생이 대략 몇십 명이다라는 두 종류의 계산법이 성립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상황에 기인해서 어학과목들은 같은 과 안에 개설되었다 하더라도 중국어 과목과 일본어 과목 (또는 한국어 등 다른 동양 언어 과목)을 개설 및 유지하는 방법이 완전히 다를 수 있다. 중국어와 일본어 과목을 예로 들면 각각 Chinese language program coordinator와 Japanese language program coordinator가 자신이 맡은 언어의 커리큘럼/강사, 조교 배치/시험, 성적처리를 전담한다. 이들간에 어학과목의 커리큘럼에 대해 개략적인 상호협의를 있을 수 있어도 상호 간섭은 없다. 어학과목은 학교에 따라 약간 다르긴 하지만 3, 4학년 과정의 극히 일부 고급과정을 제외하고는 교수가 가르치는 경우는 없고 대부분 강사와 강의조교가 서로 분담해서 가르치는 실정이다. (다만 북미에서는 이 강사와 조교들이 대부분 원어민화자인 경우가 많다. 즉,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중국어는 중국인이, 일본어는 일본인이 가르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이 어학을 가르치는 강사, 조교들을 총괄하고 어학 프로그램 전체를 관할하는 역할을 맡은 이를 흔히(Chinese) language program coordinator/director라고 하는데 어학전공의 교수 또는 전임강사가 맡는 경우가 많다. 이 어학 프로그램 책임자 외에 어학과 관련성이 적은 전공을 담당한 교수들은 일체 어학과목에 상관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만 과의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language program coordinator를 따로 선임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중국어문학 또는 일본어문학으로 각각 전공과 계열이 다른 대학원생들이 공통으로 수강할 수 있는 과목의 예로는 대학원 수업으로 개설된 과목 중 '동양언어교습법(language pedagogy of East Asian Languages)'이라 하여 한국, 중국, 일본어 언어

학을 전공하는 교수들이 매 해 돌아가면서 대학원생들에게 언어교습법을 가르치는 예가 있다. (이와 같은 과목의 개설 여부는 특정 학교 교수진의 구성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어차피 언어교습법의 기초가 되는 이론은 영미의 일반 또는 응용언어학(*general/applied linguistics*)에서 파생되어 나온 이론들이어서 대부분의 수업내용은 영어 원서로 진행하고 이를 개별 언어에 적용할 때만 자신이 전공하는 언어들을 다루기 때문에 중국학, 일본학 등 각기 전공이 다른 학생들도 모두 같이 수업을 수강할 수 있다. 대학원 과정의 일본어 언어학이나 한국어 언어학 수업도 이 두 언어가 체계적으로 유사점이 있는 것에 착안해 기초 수준의 언어 지식만 있으면 상대방 언어를 주제로 하는 대학원 세미나도 수강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또한 흔히 대학원 첫학기에 수강하게 되는 ‘목록학/자료찾기’ 수업도 한국, 중국, 일본학을 포괄하는 내용으로 개설되는 경우도 있다.

한편 문학계통의 수업들은 어학과목들과 상황이 많이 달라서 같은 과 내의 다른 전공을 하는 학생들도 모두 이수가 가능하게 하는 것이 목표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학부 수준의 모든 문학수업은 원문을 다루지 않고 번역된 작품들만 다루게 된다. 과목의 명칭도 ‘번역본으로 배우는 중국고대문학 (*Premodern Chinese Literature in Translation*)’과 같이 타전공자가 들을 수 있는지의 여부가 확실히 명시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Korean Literature in Translation* 또는 *Japanese Literature in Translation* 등의 과목도 개설된다.) 이런 수업은 주로 작품선집(*anthology*)을 주교재로 해서 진행하는데 중국문학의 경우 고대, 근현대 문학 모두 유명 교수들이 심혈을 기울여 쓴 좋은 교재들이 많다.¹⁾ 필자도 처음 중국문학을 번역본을 통해 가르치는 과목들의 강의조교를 하면서 원문을 쓰지 않는 문학수업이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이 보장될 수 있는가라는 회의적인 생각이 강했지만 원문의 의미를 잘 살려주

1) 대표적인 중국 고전문학 작품선집으로는 Stephen Owen이 엮은 *An Anthology of Chinese Literature: Beginning to 1911* (Norton: New York, 1996)이나 Victor Mair가 엮은 *The Columbia Anthology of Traditional Chinese Literature*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4) 등을 들 수 있다.

는 번역본을 사용하여 오히려 문학이론이나 배경설명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수업방식에 상당히 깊은 인상을 받은 바 있다. 실제 문학작품은 학부 수준에서는 ‘고급 중국어 독해’ 또는 ‘고문 강독’ 등의 고학년 어학과목에서 소설, 산문, 시 등을 강독하는 형태로 배우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엔 교과서에 나오는 문학작품들을 단순히 어학을 배우기 위해 읽는 텍스트로 취급하고 문학적인 접근은 하지 않는다.

북미의 동양어문학부의 학부과정에서 문학 계열의 과목으로 주목할 만한 또다른 예는 ‘아시아의 문학’과 같은 비교문학적 과목이다. UBC의 경우 5명의 다른 강사가 각각 한국, 중국, 일본, 인도, 동남아시아의 문학을 2주간 가르치는 과목이 있다. (Asian Literature in Translation) 역시 교재는 각국의 작품을 영어로 번역한 것을 사용하고 강사는 학생이 어떤 특정 외국어 능력도 없다는 가정하에 수업을 진행하며 5개 영역을 관할하는 총 5명의 강사 중 한 명이 수업 전반의 커리큘럼을 총괄하는 class coordinator를 맡게 된다.

이 외의 역사, 철학, 종교 등에 관한 수업도 학부수준에서는 예를 들어 중국역사를 가르친다고 해도 학생이 중국어 능력이 없을 것이란 가정 하에 수업을 진행하게 된다. 따라서 학부수준의 교재는 어학관련 과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수강학생의 모국어 (영어)로 쓰여진 것을 주로 사용하게 된다.

참고로 2005-2006년 현재 UBC 동양학과에 개설된 과목들을 나열해 본다.²⁾

ASIA 100	Introduction to Traditional Asia
ASIA 101	Introduction to Modern Asia
ASIA 200	Cultural Foundations of East Asia
ASIA 208	Cultural Foundations of South Asia
ASIA 209	Cultural Foundations of Southeast Asia

2) <https://courses.students.ubc.ca/cs/main?pname=subjarea&tname=subjareas&req=1&dept=ASIA> 참조. 100번대부터 400번대까지는 학부 수준의 수업. 500번대 이상은 대학원 수준의 수업이나 해당 수업을 책임지는 교사와 undergraduate advisor 또는 graduate advisor의 동의하에 교차 수강도 가능하다. 어학관련 수업, 예를 들어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인도어 수업은 따로 개설된다. 위의 예는 동양학과 안에 개설된 문사철 관련 과목들의 예이다.

ASIA 308	Mythological Literature of Ancient India in Translation
ASIA 310A	Studies in the History of a Major Asian Civilization - STDS HIST MAJ AS
ASIA 310B	Studies in the History of a Major Asian Civilization - STDS HIST MAJ AS
ASIA 311	History of Early China
ASIA 314	Premodern Japan
ASIA 315	Japan from Feudal to Modern State
ASIA 318	Premodern India
ASIA 319	History of Indonesian Civilization
ASIA 321	History of Later Imperial China
ASIA 342	Chinese Literature in Translation: The Vernacular Tradition
ASIA 344	Topics in Japanese Cultural History I: Aristocrats and Warriors
ASIA 346	Topics in Japanese Cultural History II: The Early Modern Age
ASIA 347	Traditional Korean Literature in Translation
ASIA 348	Great Literary Works of Classical India in Translation
ASIA 351	Modern Chinese Fiction in Translation
ASIA 352	Topics in Traditional Chinese Vernacular Literature
ASIA 354	Introduction to Japanese Cinema
ASIA 357	Modern Korean Fiction in Translation
ASIA 360	A Specific Asian Literature in Translation
ASIA 364	Modern Japanese Literature in Translation
ASIA 372	Development of Traditional Chinese Thought
ASIA 378	Philosophical Wisdom of Early India
ASIA 381	Daoist (Taoist) Religion and Its Philosophical Background
ASIA 382	Buddhism in China
ASIA 388	Buddhist, Brahmanical and Jain Philosophers in Interaction
ASIA 398	Classical Hindu, Buddhist and Jain Myths and Legends in Translation
ASIA 410	International Relations in Premodern East Asia
ASIA 418	Social History of India
ASIA 430	International Relations in Modern East Asia: Korea and Japan
ASIA 460	Modern Asian Women in Narrative
ASIA 464	Japanese Women's Self-Writing
ASIA 465	Culture and Society in Late Imperial China
ASIA 488	Religion, Society and State in Modern India
ASIA 513A	Topics in Classical Chinese Literature - TOPICS CHIN LIT
ASIA 513B	Topics in Classical Chinese Literature - TOPICS CHIN LIT

ASIA 514A	Topics in Modern Chinese Literature - TPCS MOD CHIN LT
ASIA 521A	Research Methods and Source Materials in Japanese Studies - RESRCH MTHD JAPN
ASIA 521B	Research Methods and Source Materials in Japanese Studies - RESRCH MTHD JAPN
ASIA 528B	Problems of Japanese Intellectual History - JAPN INTELL HIST
ASIA 532A	Topics in Traditional Japanese Literature - TRAD JAPN LIT
ASIA 532B	Topics in Traditional Japanese Literature - TRAD JAPN LIT
ASIA 533A	Topics in Modern Japanese Literature - TOP MOD JAPN LIT
ASIA 570B	Approaches to Asian Literature - APPR TO ASIA LIT
ASIA 580A	Directed Readings - DIRECTED READING
ASIA 580B	Directed Readings - DIRECTED READING
ASIA 582A	History and Structure of the Korean Language - HIST&STRC KORN L
ASIA 583A	Topics in Modern Korean Literature - TPCS MOD KORN LT
ASIA 583B	Topics in Modern Korean Literature - TPCS MOD KORN LT
ASIA 584A	Topics in Traditional Korean Literature - TPCS TRD KORN LT
ASIA 599B	Master's Thesis - MASTERS THESIS
ASIA 699	Ph.D. Thesis

3. 대학원생 인원/교수진 인원/우수 대학원생 유치

사실상 정확한 파악이 힘든 대학 학부 인원과 달리 대학원생 인원은 비교적 쉽게 알 수 있다. 대학원생을 몇 명이나 유지하고 한 해에 몇 명이나 받아들이는가를 결정하는 기준은 크게 다음 두 가지 요소를 바탕으로 설정하게 되는데, 바로 교수진의 규모와 대학원생들에게 재정적인 도움(학비, 생활비 보조)을 해 줄 수 있는 과의 재정적 능력이다. 재정적인 지원에 대해 부연해 보면, 북미의 유명 대학에선 대학원생들이 학교에서 지원하는 학비보조를 일부 또는 전액을 받는 경우가 많다. 즉 우수한 대학원생은 장학금을 보장해 주지 않으면 합격하더라도 해당 학교에 입학하지 않는 경우가 흔하다. 대부분의 대학원 진학 희망자들이 동시에 여

러 학교에 지원해서 복수의 대학에서 입학허가 통지를 받은 경우, 재정적 지원의 유무와 그 규모를 대학원의 최종 선택에 매우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정 대학이나 과에 학생들에게 지급할 장학금 명목의 예산이 없으면 대학원생을 많이 받고 싶어도 학문적 경쟁력을 갖춘 지원자가 모자라게 된다.

대학원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가장 흔한 것은 근로장학금-일종의 월급-에 해당하는 조교 장학금이다. 여기서 조교란 강의 조교(teaching assistant) 또는 연구 조교(research assistant)를 지칭한다. (한국과는 달리 과 사무실에서 사무를 보는 이들은 조교가 아니라 모두 대학에 고용된 정식 직원들이다.) 학교마다 다르지만 인문계열에선 강의 조교를 해서 일주일에 12-20시간 일하면(수업 준비, 과제물, 시험 채점하는 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 대략 한 달에 미화 1,000불 내외를 월급으로 받게 된다. (조교의 보수는 대학 소재지 현지의 물가와 연동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물가가 비싸기로 유명한 New York이나 Los Angeles 등의 대도시에 소재한 대학의 조교는 비교적 생활비가 낮은 미국 중부나 남부의 대학에서 근무하는 조교에 비해 월급을 더 많이 받는 편이다.) 또한 조교 장학금을 받으면 대학 측에서 수업료 면제를 같이 해 주는 경우도 있다. 조교 장학금은 북미의 동양학 과정의 대학원생이 얻을 수 있는 가장 흔한 형태의 재정적 지원이라 할 수 있겠다. 또한 외국인/비미국인 학생은 학기 중에는 학교 밖에서의 취업활동 또는 구직이 금지 또는 제한되어 있으므로 학비를 일해서 번다는 개념으로도 조교 장학금이 거의 유일한 학비 조달의 수단이라 할 수 있다.

또 다른 종류의 장학금은 성적 우수자에게 지급되는 fellowship이다. 이 장학금은 과 또는 대학원에서 정한 기준으로 평가해서 성적이 우수한 순서대로 지급하게 된다. (이를 근로 장학금에 대비하는 개념으로 흔히 merit-based scholarship이라 부르기도 한다.) 다만 그 수량이 상대적으로 매우 적어 외국인/비미국인 학생에게는 아예 전혀 지급이 안되는 학교들도 많고 받을 수 있다 해도 (재정이 풍부한 몇몇 사립대학을 제외하고는) 과에서 성적이 가장 우수한 몇 명 정도가 지급대상이 된

다. 따라서 fellowship의 수여 여부는 해당 학생의 학업성취 여부의 증명이라고 할 수 있어서 이력서(curriculum vitae)에 fellowship의 수상 경력과 액수를 기재하는 경우도 많다. 액수는 학교와 fellowship의 종류에 따라 다르나 흔히 일 년에 15,000-20,000불 내외이다. 이 fellowship을 받으면 학비 전액 면제(full tuition waiver)의 혜택이 같이 따라오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늘어가는 대학원생들을 모두 지원하기엔 현실적으로 벅찬 것에 기인해 박사생만을 위한 장학금/학비 보조 제도를 따로 운영하는 학교/과도 늘고 있는 추세이다. 일례로 스탠포드 대학 (Stanford University) 동아시아학과는 박사과정에 합격한 모든 신입생에게 기본적인 학비보조 제공을 보장하고 있고, UBC도 학교 전체의 모든 박사 과정 학생들에게 박사과정을 시작한 때부터 4년간의 학비를 전액 면제해 사실상 박사 과정 학생들은 등록금 교부 없이 공부하게 되었다.

교수진의 규모에 대해 논할 때 주목할 만한 점은 흔히 대학원생을 가르칠 자격이 있는 교수진을 graduate faculty라 해서 따로 구분한다는 것이다. 이 graduate faculty는 과의 교직원 들 중 정식 교수로 임명되지 않은 (전임) 강사, 교수 중 학문적 성취 (흔히 발표한 논문의 양과 질로 따짐)가 높지 않다고 생각되는 이, 조교수로 채용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대학원생 지도경험이 전무한 이 등을 제외한 교수진이다. 이렇게 graduate faculty로 선정된 교수들만 대학원생의 지도교수가 될 수 있는데, 대학원생을 받아들일 때의 일반적인 경향은 교수 자신의 주관적 판단에 근거해 우수한 지원자라 생각되지 않는다면 실제 시험점수나 추천서의 내용이 합격선이어도 그 학생의 지도교수가 될 교수가 학생 받는 것을 거부할 수 있다. 따라서 극단적인 경우 30여년간 대학원생 2명 받아들인 교수가 있는가 하면 교수 한 명이 열댓 명의 대학원생들을 동시에 지도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실제 대학원생 수의 예를 들면 UBC 동양학과 (Asian Studies)의 경우 교수진 숫자(graduate faculty)는 24명, 대학원생 수는 대략 80명 (석사 약 40명/박사 약 40명) 정도이다. UCLA 동양어언문문화학과 (Asian Languages and Cultures)의 경우는 교수진 약 30명, 대학원생 수 약 100명 가량이다. Harvard, Stanford 등의 사립대의 경우는

교수 대 학생 비율이 주립대들보다 더 낮으므로 대학원생의 수가 약간 더 적을 것으로 예상되나 정확한 인원은 파악이 되지 않았다. UBC의 경우는 보통 한 해에 10명 이하의 대학원 신입생을 받아들인다. UBC의 경우 매 해 다르긴 하나 필자가 지원한 해와 그 전 해에는, 대략 지원자의 25% 정도가 합격해서, 그 합격자 중 반이 약간 넘는 인원이 실제로 입학하였다. 합격자 중 실제로 입학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은 대부분 여러 학교에 동시에 지원해서 가장 좋은 조건이 충족되는 곳으로 최종결정을 내리기 때문이다. 필자의 경우도 미국의 다른 몇 개 대학의 중국문학 박사과정의 입학허가를 받았지만 담당교수가 될 이의 학문적 역량, 장학금 수혜 여부와 액수, 학비 및 생활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UBC를 택하게 되었다.

4. 우수 전임교원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교수업적 평가제도

우수 전임교원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에 대해 논하기 위해 우선 언급해야 할 것은 종신교수 제도(tenure)와 학과장의 선출방식이다. 종신교수제이란 한국에선 이에 정확히 상응하는 제도나 개념을 찾기가 어려운데 북미에서는 일단 박사학위 취득자(또는 박사 학위 취득 예정자)를 조교수로 채용되면 대부분 2-3년 계약을 한다. 계약 종료 시 계약 연장을 할지의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렇게 2-3년 마다 재임용 절차를 거치다가 대부분 부교수로의 승진 여부를 결정하면서 종신교수 직을 수여할 지도 같이 심사하게 된다. (이는 대학마다 조금씩 그 제도가 다르며 특히 일부 사립대는 자기만의 독특한 승진 및 교원 평가 시스템을 적용하는 곳도 있다.) 종신교수직의 심사는 외부에서 초빙한 무기명 심사위원을 두고 할 정도로 공정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절차를 따르며 교원이 일단 종신교수직을 얻게 되면 다시는 재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큰 실수를 저지르지 않는 한 은퇴할 때까지 교수자리가 보장된다. 종신교수직은 교수가 단기적인 성과에 얽매이지 않고 안정

적, 장기적인 연구를 지속할 수 있도록 직업의 안정성(job security)을 보장해 주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다음으로 북미에서는 학과장을 교수들이 몇 년씩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학문적, 행정적 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장 명망있는 교수가 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한 번 학과장이 되면 10년, 20년 이상 은퇴할 때까지 (또는 학장 등으로 승진할 때까지) 학과장을 맡게 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다. 과의 기존 교수 중 학과장이 될 만한 명망이 있는 사람이 없다고 판단되면, 공모를 내어 외부에서 학과장을 위촉해오는 경우도 있다.

전임교원 확보에 의해 좀더 구체적으로 논해보면, 한 마디로 결론짓기는 힘들나 학자가 자신이 근무할 대학과 과를 선택할 때 대체적으로 봉급의 액수보다는 연구의 편이성이 더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다. 북미에서는 같은 교수직이더라도 계열별로 봉급의 차이가 매우 커서 의학, 법학, 공학 계열의 교수들은 인문 계열보다 봉급을 2-5배 가량 더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시 말해 인문학을 하는 교수들은 이미 학문의 길을 선택한 순간부터 높은 소득보다는 학문적 열정을 바탕으로 그야말로 진리탐구를 일차적인 목표로 하는 사람들이 많다. 또한 거의 모든 대학에 다 개설되어 있는 영어학, 화학, 물리학, 수학 등의 인문학, 이학 분야의 기초 학문과는 달리 동양 언어 문학이란 분야가 한 과로 독립하여 개설되고 대학원 과정까지 개설되어 있는 대학은 북미 전체에 3, 40여 개뿐이다. 따라서 좀 더 높은 수준의 학문 연구의 편이성을 제공할 수 있는 동양학과의 규모가 크고 자체의 동양학도서관 (Asian library/collection)을 갖고 있는 과가 우수교원 확보 측면에서 유리한 입장을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최근에 UBC 동양학과에서 새 교직원을 뽑을 때 수십 명의 지원자 중 이미 University of Virginia와 University of Norte Dame에서 교수직을 갖고 있는 학자들이 지원했던 적이 있다. 이는 위의 두 학교의 전체적인 수준이 UBC보다 떨어진대거나 UBC가 봉급을 더 많이 준다고 보다는 위의 두 학교는 동양학과가 따로 설립되어 있지 않고 독립된 동양학 도서관도 없는 등의 이유로 UBC 동양학과에 재직하는 것이 학문연구에 더 편리한 환

경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기존의 동양학의 명문교들이 우수교원을 확보하는데 기본적으로 유리한 입장을 차지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 또 다른 예로 최근 몇 년 간 하버드대 (Harvard University)의 동아시아학과 중국문학/문화계열의 경우 Leiden University의 Wilt Idema(중국고전소설), Princeton University의 Wai-ye Li (중국고전소설), Columbia University의 David Der-wei Wang (청말 민국초 소설), University of Toronto의 Michael Szony (명청대 법률 및 사회제도) 등 다른 명문 대학의 정교수급 유명교수들을 거의 싹 쓸어왔다 싶은 정도로 유명한 학자들을 많이 스카우트해 왔다. 흥미로운 것은 중국고전소설의 예를 들면 몇 년 전 은퇴한 Patrick Hanan이 키운 제자들이 십여 명이나 다른 대학에서 교수로 활동하고 있지만 현재 하버드대 동양언어문화학과에서 중국 고전 소설을 가르치는 교수 3명 모두 Hanan이 은퇴하면서 다른 유명 대학에서 스카우트해 온 학자들로 그 중 한 명도 하버드 출신의 자신의 직계 제자가 없다는 것이다. 대체적으로 수준이 높은 학교/과일수록 경험이 부족한 학자보다는 이미 학문적 업적을 인정받은 학자를 스카우트해 오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역시 기존의 학교 명성, 쟁쟁한 동료교수들의 수준, 방대한 동양학 도서관 장서 등이 우수 교원 유치에 복합적으로 유리한 작용을 한다 할 수 있겠다.

이런 대세 속에서 우수 교원을 확보하려고 활용되는 방법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위에 언급한 종신교수직과 학과장직 등을 활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다른 학교에서 아직 종신교수직을 받지 못한 교수를 스카우트해 오기 위해 학교를 옮기는 조건으로 종신교수직 제공을 조건으로 내거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다른 학교로 간다는 교수를 종신교수직, 학과장직, 또는 중국학연구소 소장직 등의 고용안정성 보장/보직 제공 등의 수단으로 만류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다른 학교에서 스카우트 제안을 받은 교수를 남게 하기 위해 이런 보직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 학교에서 제공한 것 이상의 봉급인상안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

교수업적의 평가로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앞서 언급한 종신교수제라고 할 수 있다. 종신교수로 임명된 학자는 이미 일정 수준 이상의 학문적 업적이 검증됐다

고 보아야 한다. 반대로 조교수로 채용된 후 종신교수 임용에서 2번 연속 탈락하면 바로 재임용 거부가 되는 제도를 가진 학교들도 많다. 2차적인 평가는 부교수에서 정교수로의 승진인데, 이미 종신교수직을 받아 부교수가 된 학자들도 뛰어난 학문적 업적이 없으면 은퇴할 때까지 부교수로 마치는 이들이 많다. 학교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지명도가 높은 학교에서 정교수로 승진하기가 더 어려운 편이다. 정교수가 되었다는 것은 이미 상당한 학문적인 업적이 쌓였다는 검증이 된다. 이 정교수 중 소수가 교수 직함 앞에 어떤 타이틀이 붙은 '기념교수' (예: Charles H. Carswell Professor of East Asian Languages and Civilizations)의 명예를 얻는 경우도 있다. 이런 타이틀은 대부분 그 학교의 전임 총장이나 학장, 저명한 은퇴 학자, 기부금을 많이 낸 독지가 등의 이름을 딴 경우가 많다. 또 명예교수(Professor Emeritus)직도 재직 시 학문적인 업적이 뛰어난 경우에만 수여해서 정교수로 은퇴해도 명예교수가 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5. 연구비 관리제도

기본적으로 인문계열에서는, 특히 문학을 하는 경우에는 봉급 이외의 연구비를 획득할 기회 자체가 이공계/의학계/법학계열 등에 비해 매우 적다. 간혹 있다고 해도 주로 정부 차원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 위주로 경쟁률이 상당히 높고 그에 비해 연구비 지급액수는 그리 많지 않은 경우가 많다. 언어학, 특히 언어교습법을 위주로 한 실용/응용언어학 방면이 문학에 비해 국가/정부기관, 기업체 용역 등의 연구자금을 얻기가 쉽고 액수도 큰 편이다. 특히 최근 중국, 북한을 가상 적대국으로 설정한 미국 국방부가 이들 가상 적국의 언어를 할 수 있는 사병들을 단기간에 대량 육성하기 위해 동양학 규모가 큰 대학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거나 대규모 언어

교재 개발 프로젝트를 발주하는 등 이들 특정 언어가 일종의 '적성국 특수'를 누리고 있다는 관찰도 있다.

6. 취업현황

앞서 언급한 대로 학부생은 그 인원수 자체가 파악이 안 되고 자신이 어떤 과의 학생인지 소속감 자체가 없기 때문에 특정 학과 졸업생의 취업현황의 파악이란 시도 자체가 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10-12과목만 이수하면 전공으로 인정해주는 편제상 대부분의 학생들이 부전공이나 복수 전공 등으로 한 개 이상의 전공을 이수하고 졸업하는 것이 상례로 취업현황과 어떤 특정과의 졸업생과의 상관관계를 따지기엔 더 어려워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간 서양 학생들(비동양권 학생들)이 취업에 도움이 된다고 여기고 중국어와 일본어를 수강하는 경향은 점점 두드러지고 있다. 또한 대학 졸업 후 중국, 홍콩, 일본, 한국 등의 아시아 현지에서 취직하기 위해 외국어를 배우는 경향도 강해지고 있다. 따라서 중국어나 일본어를 자신의 부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선택하는 학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대학원생의 취직현황도 파악이 그리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우선 석사를 끝으로 취업의 길을 택하는 졸업생은 학자의 길을 걷기 보다는 대부분 학사 졸업생과 비슷하게 일반 회사에 취업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부 졸업생과 같은 이유로 특정 전공과 취업 여부와의 상관관계를 유추하기가 어렵다. 박사 졸업생의 경우도 유학생의 경우 전공의 특성상 졸업 후 바로 귀국해서 모국(중국, 한국, 일본, 대만 등)에서 자리를 잡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북미대학에 몇 퍼센트가 취직하더라는 등의 자료는 그리 많지 않다. 또한 박사졸업생의 교수/연구원으로의 취업 현황은 그 분야에서 교수자리가 한 해에 얼마나 나오는가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아

상당히 유동적이라 하겠다.

7. 동양학 도서관

대부분의 북미 대학 도서관에는 동양학 분야의 유럽 언어로 쓰인 책들은 상당히 잘 갖추어져 있다. 그러나 역시 동양학 연구에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연구의 대상인 텍스트 原典 또는 일차적인 자료 (primary source)일 것이다. 다음은 북미의 동양학 도서관 중 (주로 중국 대륙, 대만, 홍콩 등지에서 출판된) 중국언어로 된 장서 보유 수를 기준으로 가장 주요한 12곳을 나열한 것이다. 1996년 6월 보유현황으로 지금은 상당한 수의 장서가 추가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들 주요 동양학 도서관들은 중국 본토에서도 구하기 힘든 상당수의 善本도 보유하고 있다. 특기할 만한 사항은 북미의 연구 중심 대학들 사이엔 상호 도서 대여 협정(inter-library loan)이 맺어져 있어 설령 자신이 속한 연구기관에 찾는 자료가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기관의 도서관으로부터 자료를 대여받을 수 있다. 동양학 도서관이 따로 갖춰져 있지 않거나 있더라도 그 컬렉션(collection)의 규모가 크지 않은 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연구자에게 매우 유용한 제도이다. 북미주의 대학끼리는 보통 2주 안에 신청한 자료를 받아 볼 수 있다. 다만 희귀자료, 善本, 쉽게 훼손되는 자료는 도서관 간의 상호대여가 제한 될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흔히 마이크로 필름(microfiche)으로 복사한 자료를 받을 수 있다.

1) 미국 국회 도서관 (Library of Congress, Washington, DC). 1861년 설립. 718,000권의 중국 언어로 쓰인 책을 보유하고 있다. 폐가식 서고 형태로 책 검색이 편리하진 않지만 온라인 목록 (online catalog)이 있고 매년 도서목록이 나오고 있다. 중국을 제외하고는 세계에서 가장 방대한 양의 善本과 미국에서 가장 방대한 규모의 地方

誌를 보유하고 있다.

2) 하버드 대학의 하버드-옌징 도서관 (Harvard-Yenching Library, Harvard University). 동양학 관련 대학 도서관 중 북미에서 가장 큰 규모를 가졌으며 494,000 권의 중국어로 쓰인 서적을 보유하고 있다.

3) 프린스턴 대학 (Princeton University). Gest Library에 38만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다.

4) 예일 대학 (Yale University). 378,000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다.

5)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버클리 캠퍼스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33만권 보유.

6) 시카고 대학 극동 도서관 (Far Eastern Library, University of Chicago). 327,000권 보유.

7) 컬럼비아 대학 C.V. Starr 동양학 도서관 (C.V. Starr East Asian Library, Columbia University) 305,000권 보유.

8) 미시간 대학 동양학 도서관 (Asian Library, University of Michigan, Ann Arbor). 303,000권 보유.

9) 코넬 대학교 (Wason Collection on China and the Chinese, Cornell University). 302,000권 보유.

10) 브리티쉬 컬럼비아 대학 동양학 도서관 (Asian Library,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Vancouver). 캐나다 최대 규모의 동양학 도서관. 226,000권 보유.

11) 스탠포드 대학 후버 연구소 (Hoover Institution, Stanford University). 222,000권 보유.

12) 워싱턴 주립 대학 (University of Washington). 220,000권 보유.³⁾

8. 학회(Conferences)

여러 학술단체가 주관하는 동양학을 주제로 하는 다양한 학회들이 있지만 북미 전체를 포괄하는 가장 대표적인 학회는 Association for Asian Studies (흔히 약칭으로 AAS라고 불려짐)라고 할 수 있다. 1941년에 창립되어 동양학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단일 학회로서는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며 아시아 대륙 전체를 4개의 주 영역-남아시아 South Asia (SAC), 동남아시아 Southeast Asia (SEAC), 중국 및 중앙아시아 China and Inner Asia (CIAC), 동북아시아 Northeast Asia (NEAC)-으로 나뉘서 아시아 지역 전반에 관한 학문적인 연구를 포괄하고 있다. 1년에 한 번 씩 미국의 대도시에서 번갈아가며 정기학회를 여는데 이 정기학회는 보통 4일간 열리며 논문 발표자만 수백 명, 학회에 참가하는 학자는 수천 명을 헤아리는 북미 최대 규모의 동양학 학회이다. 또한 이 정기학회에 참여해서 자사의 동양학 관련 신간서적을

3) 이상 북미의 동양학 도서관에 대한 통계는 Endymion Wilkinson, *Chinese History: A Manual* (Harvard University Asia Center: Cambridge, 2000)의 330-332쪽에서 인용함. 북미의 동양학 도서관에 대한 더 자세한 자료는 *A Guide to East Asian Collections in North America*, Thomas H. Lee, comp. Greenwood, 1992를 참조할 것.

홍보, 판매하는 출판업체의 수도 상당히 많아서 지난 한 해 동안 나온 동양학 관련 주요 서적을 한 눈에 정리해 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미국에서 열리는 학회인 만큼 주로 북미 대륙의 대학 및 연구기관에 근무하는 학자들이 많이 참석하나 최근에는 중국, 일본 및 아시아 각국에서 직접 AAS에 참석하는 학자들이 늘고 있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전 세계적인 규모로 확장되고 있는 추세이다. 올해(2006년)의 정기학회는 4월 6일에서 9일까지 미국 샌 프란시스코(San Francisco)에서 열릴 예정이다. 전국 규모의 AAS 연례 학회 이외에도 9개의 각 지역별 학회(예: Western Conference, Midwest Conference)가 각각 1년에 한 번씩 그 지역 학회가 총괄하는 지역의 대도시에서 개최된다. AAS의 웹사이트(<http://www.aasianst.org/>)에서는 북미의 동양학에 관련된 최근 소식, 특히 북미 지역 대학들의 동양학 전공 관련 교직원 채용 공고를 볼 수 있다. 또한 AAS의 웹사이트에서는 영어 및 서양언어로 쓰인 동양학 관련 문헌의 서지학적 정보를 총망라한 데이터베이스(Bibliography of Asian Studies)도 제공하고 있다.

9. 학술지(Academic Journals)

서양 언어로 편집되는 동양학 관련 학술지의 종류는 상당히 방대하다. 여기서는 지면관계상 중국학 특히 문사철 분야의 가장 주요한 학술지 몇 개만 간략히 소개 하도록 하겠다.

Harvard Journal of Asiatic Studies

하버드 대학에서 1년에 두 번씩 발행하며 한중일의 문사철 관련 논문들이 실린다. (주로 중국학, 일본학에 관련된 논문 위주로 편집되어 한국 관련 논문은 때

회 1편을 넘지 않는다.) 또한 동양학 방면의 새로 나온 연구 서적에 대한 서평(Book review)도 실린다. 학계의 유명 원로교수들을 편집위원(Editorial board members)으로 선임하여 수준 높은 학술 논문들만 엄선해 실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으나 상대적으로 본교 출신의 학자들의 논문을 편애하는 경향이 있다거나 다소 보수적인 성향이라는 평도 있다.

Journal of Asian Studies

위에서 언급한 Association for Asian Studies에서 발행하는 학술지로 북미의 동양학 관련 학술지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아시아 전반(중앙 아시아,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포함)을 소재로 한 문학, 사학, 철학, 법학, 인류학 등 인문학 전반에 걸친 논문이 게재되며 역시 동양학 전반에 걸친 신간 학술서적의 서평이 실린다. 1년에 4번 출간된다.

Chinese Literature, Essays, Articles, and Reviews

흔히 약칭으로 CLEAR라고 불리며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의 William H. Nienhauser, Jr.와 Washington University의 Robert E. Hegel이 편집장을 맡고 있다. 학술지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문학에 관한 정선된 논문과 서평을 싣고 있다. 미국에서 발행되는 중국문학 관련 학술지 중 가장 널리 알려져 있다.

Nannü: Men, Women and Gender in China

1999년에 창간된 비교적 역사가 짧은 학술지이나 중국학을 바탕으로 해서性に 관련된 연구(studies related to men, women, and gender)만을 다루는 쪽으로 특화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 학술지이다. 편집위원 역시 중국학계의 유명 학자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 주로 중국 문화와 역사 방면의 성 관련 논문이 많이 게재되나 언어학, 법학, 의학, 철학, 미학, 고고학 등 중국을 소재로 하고 性を 주제로 한 논문은 모두 게재가 가능하다.

Positions

역시 90년대 초반에 시작한 비교적 역사가 짧은 학술지로 동양학 전반을 범위로 해서 이론적(theoretical), 실험적, 진보적(provocative), 또는 여러 학문의 영역에 걸친(multidisciplinary) 글만을 전문적으로 실는 학술지이다. 학술지의 특화된 성격상 다양한 현대 문학 사조 또는 미학 이론으로 무장한 소장학자들의 글이 많이 실리는 편이다.

Tamkang Review

여기 소개하는 영어로 간행되는 중국학 학술지 가운데 유일하게 비서구권 지역, 대만에서 간행되는 학술지이다. 1970년에 시작하여 비교적 긴 역사를 갖고 있으며 주로 중국-서양 비교 문학/문화 이론에 관한 논문을 많이 게재하고 있다. 대만의 淡江大學에서 간행하나 편집위원들은 저명한 서양학자들이 더 많다. 영어로 간행하는 특징상 논문 저자도 서구의 학자들이 많은 편이나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의 중국계 소장학자들의 글도 자주 보인다.

China Review International

미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동양학 과정을 가진 하와이 주립 대학(University of Hawai'i at Manoa)의 중국학 전공 교수들이 편집위원으로 1년에 두 번 씩 발행된다. 논문 게재를 중심으로 하는 기존의 학술지와는 달리 중국, 대만, 홍콩, 일본, 유럽, 북미 등지에서 출간된 중국학 관련 서적들의 서평만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다. 중국학 관련 최신 서적들에 관한 상세하고 구체적인 서평으로 이름나있다.

Y'oung Pao

1890년에 시작되어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중국학 학술지이다. 한 해에 한 번 간행되며 유럽에서 간행되는 학술지란 특징 상, 영어 외에 불어 혹은 독일어 등 유럽언어로 쓰인 논문도 자주 보인다. 기나긴 역사와 널리

알려진 명성에 비해 최근에 실린 논문들은 예전만 못한 편이라는 평도 있다.

10. 결어

이상 북미에서의 동양학 연구와 북미 대학에 개설된 동양학 과정의 특징에 대해 간략하게 논해 보았다. 북미에서의 동양학 연구 전반에 관한 실정을 편견 없이 요약해 보려고 노력했으나 필자의 좁은 안목과 식견에 가려 편협한 글이 되지 않았나 싶어 두려울 따름이다. 어디까지나 간략한 소개의 글이니만큼 독자 제현의 이해를 바란다. 차후에 필자와는 다른 학교에서 동양학의 다른 분야를 공부하신 분이 더 포괄적이면서도 상세한 관점의 글로 필자의 졸고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실 기회가 있기를 기대해본다.